

# ‘기대주에서 스타로’ 임성재는 진화중

### PGA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3위...더블보기로 2주 연속 우승 놓쳐 2개 대회 연속 톱3 입상...페덱스컵, 토머스 제치고 중간 랭킹 1위 등극

한국골프의 ‘영건’ 임성재(22)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주 연속 우승’을 눈앞에 뒀다가 돌아왔다.

임성재는 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클럽 앤 로지(파7·7454야드)에서 열린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최종일 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더블보기 1개, 보기 2개를 적어내 1타를 잃었다.

어려운 코스에서 합계 2언더파 286타를 친 임성재는 우승자 티릴 해턴(잉글랜드·4언더파 284타)에 2타 뒤진 단독 3위로 대회를 마쳤다.

2018-2019 시즌 신인상을 차지했던 임성재는 지난해 혼다 클래식에서 정상에 올라 ‘우승 없는 신인왕’이라는 꼬리표를 떼 뒤 다시 좋은 성적을 내면서 강렬한 ‘영건’ 이미지를 팬들에게 심어줬다.

임성재는 또한 시즌 페덱스컵 랭킹에서도 저스틴 토머스(미국·1403점)를 제치고 중간 순위 1위(1458점)로 올라섰다.

임성재는 “지난주 우승 뒤 이번 주에도 우승 경쟁을 했으니 나 자신에게 95점을 줘도 되겠다”며 “오늘 후반에 몇 개 홀에서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지만 경기를 잘 마무리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해턴은 PGA 투어 60경기 출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며 우승 상금 167만4000달러(약 20억1000만원)를 받았다.

2017년 이 대회 우승자 마크 리수먼(호주)이 해턴을 끝까지 압박했지만 1타 뒤진 2위(3언더파 285타)에 올랐다.

임성재는 전반 9개홀을 도는 동안 그린 적중률이 높지 않았지만, 정교한 쇼트게임과 퍼트로 경기

를 풀어갔다.

3번홀(파4)에서는 4m가 조금 넘는 퍼트를 떨어뜨려 전반전에 유일한 버디를 잡았다.

다른 우승 경쟁자들이 기복이 심한 경기를 펼치는 사이 보기 없는 플레이를 이어가던 임성재는 11번홀(파4)에서 위기를 맞았다.

위더 해저드를 가로질러 친 두 번째 샷이 그린을 넘어갔고, 세 번째 샷마저 짧아 그린 위에 올리지 못해 보기를 적어냈다.

이때까지 3타차 선두를 달리던 해턴은 11번홀에서 티샷을 위더 해저드에 빠뜨린 끝에 더블보기를 했다.

임성재는 12번홀(파5)에서 곧바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린 임성재는 두차례 퍼트로 가볍게 버디를 잡고 해턴과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하지만 임성재는 13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물에 빠뜨리고, 보기 퍼트마저 놓쳐 2타를 잃고 말았다.

임성재는 “그린까지 100m 정도를 남기고 앞 바람이 불고 있었다. 52도 위저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샷을 했는데 너무 짧아 물에 빠졌다”고 돌아봤다.

15번홀(파4)에서 1.2m 퍼트를 놓쳐 다시 한타를 잃은 임성재는 16번홀(파5)에서 버디로 만회하며 다시 우승 경쟁에 나섰다.

임성재는 18번홀(파4)에서 위더 해저드를 넘겨 핀을 바로 공략하는 과감한 두 번째 샷으로 버디 기회를 만들었지만, 4m 거리의 버디 퍼트가 홀 바로 옆에서 멈춰 입맛을 다셨다. /연합뉴스



## 정찬성, 오르테가에 선전포고 UFC 게임 무산 인터뷰 겁쟁이 언급 통역해준 가수 박재범 폭행에 격분

‘코리안 좀비’ 정찬성(33·코리안좀비MMA)이 가수 박재범(33)을 폭행한 브라이언 오르테가(20·미국)를 향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정찬성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너(오르테가)는 박재범을 공격했다”며 “네 얼굴을 피범벅으로 만들겠다”고 오르테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찬성은 전날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UFC 248에 참석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행사에 동행한 자신의 소속사 AOMG의 대표인 가수 박재범이 오르테가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다.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의 아리엘 헬와니 기자는 트위터에 따르면 정찬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오르테가가 박재범에게 다가가 ‘네가 박재범 맞느냐’고 물었고 ‘맞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박재범의 뺨을 때렸다.

헬와니 기자는 박재범의 입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해 들었다고 소개했다.

정찬성과 오르테가는 지난해 12월 UFC 부산 대회에서 격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르테가가 경기를 보며 앓고 무릎을 다쳐 맞대결은 무산됐다. 정찬성은 대체 선수인 프랭키 에드거를 2라운드 TKO로 꺾었다.

정찬성은 하마터면 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UFC 대회를 망칠 뻔한 오르테가에게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정찬성은 이후 ESPN과 인터뷰에서 누구와 붙고 싶은지 묻는 말에 “날 피해 도망간 오르테가를 굳이 잡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 인터뷰 통역은 박재범이 했다.

오르테가는 자신을 ‘도망자’, ‘겁쟁이’ 취급한 인터뷰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재범에 대해서도 “나와 마주했을 때 내가 때려도 놀라지 마라”고 경고했고, 그 말을 실행에 옮겼다.

이슈가 커지면서 오르테가가 처벌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격투기 매체인 MMA정기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에 보고서가 작성된 상태다. 이제는 사법 당국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정찬성도 오르테가를 향해 선전포고했다.

정찬성은 “박재범은 프로파이터가 아닌 뮤지션”이라며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다. 뮤지션을 때린 겁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나와 싸우기 위한 계획이었다면 성공했다. 네 얼굴을 피범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AOMG는 현지 경찰에 현장 사건이 접수되기는 했지만, 박재범이 고소를 원치 않는다고 “별도의 법적 조치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잘 쉬는 것도 전략 ...호랑이들의 ‘휴일 사용법’



- 방콕파 문경찬·최원준·박찬호·황윤호 등 수면 보충·TV 시청·게임 즐겨
- 쇼핑파 양현종, 아이들 선물 구매 틈틈이 후배들 몸 보신도
- 나들이파 임기영·이민우·홍건희·박진태 등 해변가에서 느긋한 한 때
- 낚시파 유민상·장영석 월척 낚으며 꿀맛 휴식

### 선수단 14·15일 귀국 앞 마지막 릴레이 연습경기

‘잘 쉬는 것도 전략 중 하나. KIA 타이거즈 선수단의 휴식일 풍경을 엿봤다.

휴식일은 말 그대로 휴식일인 선수들이 많다.

‘연장 캠프’에 앞서 찾아온 9일 휴식일에도 많은 선수가 늦잠과 방을 선택했다.

문경찬은 “밖에 나가도 딱히 할 게 없다”며 이날 휴식을 취했고, 박준표도 “오늘은 방콕이다”며 휴식으로 체력을 채우는 데 집중했다.

활발하게 휴식날을 보낼 것 같은 최원준도 대표적인 ‘방콕파’다.

최원준은 “특별히 하는 것 없이 방에 있는 편이다. 핸드폰 게임을 주로 한다”고 언급했다.

박찬호와 황윤호처럼 드라마 감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두 사람은 최근 화제를 모았던 ‘스토브리그’와 ‘사랑의 불시착’ 애정자였다.

박찬호는 “두 드라마를 즐겨 봤었는데 끝내서 나

이 없다”며 “요즘은 주로 방에서 핸드폰 게임을 한다”고 언급했다.

거침없는 플레이와 개성 있는 외모와 달리 황윤호는 감성파이기도 하다.

황윤호는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울기도 했다. (룸메이트인) 승택이가 옆에 있는데 창피하니까 옆으로 누워서 울면서 봤다”고 웃었다.

세 아이의 아빠 양현종은 아이들을 위한 쇼핑을 하며 휴식일을 보낸다.

“애들 물건 사러 쇼핑물 다닌다”는 양현종. 투수 후배들도 양현종이 챙기는 ‘아이들’이다.

양현종은 시간이 나는 대로 후배들을 데리고 나가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있다. 특히 임기영은 양현종과 실과 바늘이다.

임기영은 “실 때 일과가 현종이 형 쫓아다니는 것이다. 현종이 형이 해외 진출을 한다고 생각하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밖에 없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배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영은 9일에는 이민우, 홍건희, 차명진, 김승범, 박진태와 포트마이어스 해변에 가 느긋한 한 때를 보냈다.

차명진은 “한국 돌아가기 전에 바다는 한번 보고 가야 할 것 같았다”며 해변 나들이를 이야기했다.

해변 산책에 동행한 ‘막내’ 김승범에게는 ‘편의점 나들이’라는 또 다른 휴식 일과가 있다.

김승범은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한다. 실 때 편의점을 자주 간다. 딸기 우유, 초코 분말 등을 많이 산다. 먹을 게 많고 신기하다”고 웃었다.

외향적인 성격의 유민상은 휴식날 의외의 취미 생활을 즐긴다. 낚시대를 드리우는 게 유민상의 휴식날 풍경이다.

유민상은 “낚시를 좋아해서 쉬기 전날이나 쉬는 날 낚시를 간다. (장)영석처럼 원래 친하기도 하고 낚시를 좋아해서 같이 나간다”며 “여기는 낚시할 곳은 많다. 대신 미국에서는 낚시하려면 라이선스를 사야한다. 마트에서 라이선스를 사면 금지 표지만 없으면 어디서든 낚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활발한 이미지와 다른 의외의 취미라는 반응에는 “많이 잡으면 낚시줄을 많이 감으니까 활발한 활동이다. 물론 계속 낚시추도 던져야 한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이날 투수 박서준과 불펜 포수 이동건 등은 포트마이어스 젯볼파크를 찾아 보스틴과 미네소타의 시범경기 관람을 하며 휴식날을 보냈다.

한편 ‘꿀맛’ 같은 휴식일을 보낸 KIA는 14·15일 귀국에 앞서 릴레이 연습경기로 막판 스피트를 펼친다. /wool@kwangju.co.kr



‘강태공’ 유민상



영건들 ‘해변으로 가요’



투수조 양현종이 쓴다

## 프로야구·배구 리그 재개 논의

프로야구와 프로배구가 10일 각각 정규리그 개막 시점, 정규리그 재개 여부를 논의한다.

KBO 사무국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프로 10개 구단 사장이 모이는 이사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투명해진 정규리그 개막 시점을 상의한다.

예정된 정규리그 개막일은 이달 28일이다.

지난주와 비교해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잠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KBO 이사회는 추이를 살펴 신중하게 개막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BO는 3월 10개 구단 단장들이 모인 실행위원회에서 실행위와 이사회를 번갈아 열어 매주 상황을 점검한 뒤 정규리그 일정을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단, 정규리그 개막 2주일 전에는 개막 시점을 확정하기로 했다. 원래대로 28일 개막하려면 최소 14일까지 결론이 나와야 한다.

한국배구연맹(KOVO)도 1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사무실에서 남녀 13개 구단 사무국장들이 모이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연맹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지난달 25일부터 무관중 경기를 개최하다 선수와 팬들의 안전을 위해 3월부터 리그를 중단했다.

실무위원회는 리그 재개 시점, 재개 후 리그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리그 재개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다.

연맹은 자유계약선수(FA) 계약,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등 다음 시즌을 위한 여러 일정을 소화하려면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을 4월 중순까지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규리그 재개 시점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정규리그를 2일 현재 순위대로 끝내고 바로 ‘봄 배구’로 가는 방안, 정규리그를 끝까지 마무리 짓고 포스트시즌 일정을 즐기는 방안 등이 실무위원회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